

# 광주FC 주장단 선임...아침·K리그1 '두 토끼' 사냥 나선다

### '원클럽맨' 이민기 주장...이강현·김진호 부주장 맡아 주장단 "원팀" 가교...더 높은 목표 향해 책임 다할 것"

광주FC의 이민기가 '캡틴'으로 2025시즌을 이끈다.

프로축구 광주FC가 이민기(31·DF)를 필두로 이강현(26·MF)과 김진호(24·DF)를 '부주장'으로 임명해 주장단 구성을 마무리했다.

이민기는 2016년 광주에서 프로에 데뷔한 '원클럽맨'으로 상무에서 군 복무를 한 18·19 시즌을 제외하고 광주 유니폼을 입고 통산 179경기에 나와 4골 7도움을 기록했다.

지난 시즌에는 안영규를 도와 부주장을 맡는 등 그라운드 안팎에서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로 활약하고 있다.

지난 12월 결핵식을 올린 '새신랑'이기도 한 이민기는 올 시즌 팀에서도 역할이 막중하다. 이민기는 주장 완장을 차고 광주 전면에 서서 아시아챔피언스리그와 K리그1 질주를 이끌게 된다.

이민기는 "광주의 원클럽맨으로서 주장 완장을 찰 수 있게 돼 매우 영광이다. 감독, 코칭스태프와 선수들의 가교 역할을 통해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게 책임을 다하겠다"고 선임 소감을 전했다.

광주의 분위기 메이커인 이강현은 부주장으로 주장 이민기를 보조하게 된다. 올 시즌 선수단 구성에 많은 변화가 있는 만큼 광주 3년 차인 이강현은 새 얼굴들의 팀 적응과 '원팀'을 위한 역할을 맡게 된다.

이강현은 "부주장 김진호와 함께 이민기를 잘 보조하겠다. 때로는 쓴소리도 아끼지 않으며 맡은 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 입단 2년 차에 부주장으로 선임된 김진호는 팀의 '핵심 선수'다.

강원FC에서 지난해 광주로 이적한 김진호는 2024시즌 36경기에 출전하면서 골키퍼 김경민, 미드필더 정호연과 함께 팀에서 가장 많은 경기를 소화했다. 올 시즌에도 부지런히 그라운드를 누벼야 하는 김진호는 부주장으로 베테랑과 젊은 선수들을 잇는 가교 역할도 수행해야 한다.

김진호는 "처음 주장단을 맡게 됐는데 팀을 위해 헌신해 경기장 안팎에서 보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주장단'을 선임한 광주는 아침과 K리그1 두 마리 토끼 사냥을 위해 걸음을 재촉하게 된다. 실적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동아시아그룹 2위에 자리하고 있는 광주는 내달 11일 산둥 타이산과의 ACLC 원정경기를 통해 16강 확정을 노린다.

이어 2월 15일에는 K리그1 개막전을 치러야 한다. 광주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김은중 감독이 이끄는 수원FC를 상대로 개막전을 갖고 2025시즌 첫 승에 도전한다.

한편 지난 3일 태국 코사무이로 떠난 광주는 23일까지 기초 체력 향상과 전술 다지기를 목표로 1차 동계 훈련을 이어간다.

이어 26일부터 2월 3일까지 일본 오사카에서 본격적인 실전 준비에 나서 조직력을 강화하고 베스트 라인업을 구성하게 된다. /김여울 기자 wool@



광주FC의 '주장단' 부주장 이강현(왼쪽부터), 주장 이민기, 부주장 김진호가 태국 코사무이 마릴레이나스포츠클럽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광주FC 제공>

## "KIA랑 한국시리즈서 다시 만나 진검승부 해야죠"



### 광주 출신 삼성 이성규, 동성고서 새 시즌 준비 프로 첫 KS서 홈런 등 지난 시즌 '눈부신 활약'

삼성 라이온즈 외야수 이성규(사진)가 고향에서 칼을 갈았다.

광주 출신의 이성규는 겨울이면 모교인 동성고를 찾아 새 시즌을 준비한다. 이번 겨울에도 그는 동성고에서 체력, 기술 훈련 등을 하면 워밍업을 했다.

이성규는 "매년 트레이닝 센터 다니고 동성고에서 훈련을 한다. 몸 안 아프게 잘 만들려고 했다"며 광주에서의 훈련을 이야기했다.

루틴대로 똑같이 훈련을 하며 또 다른 시즌을 위한 밑그림을 그렸지만, 예년과는 마음이 조금 다르다. 잊지 못한 2024년을 보냈던 만큼 올 시즌을 준비하는 마음이 남다르다.

동성고-인하대를 거쳐 2016년 삼성 유니폼을 입은 이성규는 지난 시즌 가장 많은 122경기에 출전해 355타석을 소화했다. 그리고 놀라운 장타 실

력도 보여줬다.

앞서 통산 홈런이 13개였던 이성규는 지난해에는 22차례 담장을 넘기고 그라운드를 돌았다.

프로 첫 한국시리즈 무대에서도 강렬한 한방을 선보였다. 이성규는 KIA 타이거즈와의 한국시리즈 3차전에서 8번 타자 겸 우익수로 선발 출장해 비거리 125m 대형 선제 솔로포를 장식하면서 'KS 홈런타자'로 등극했다.

이성규의 홈런으로 분위기를 가져온 삼성은 이 경기에서 4-2 승리를 거뒀다. 지난 한국시리즈 삼성의 유일한 승리였다.

지난 시즌 놀라운 파괴력을 보여줬던 이성규는 '마음'의 변화를 이야기했다.

이성규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나왔다. 기술적으로 달라진 것은 없는데 멘탈적인 부분이나 자신감이 많이 좋아져서 그런 모습이 나왔던 것 같다"

며 "장타 부분에서 지난해 좋은 모습 보여줬으니 지금은 정확도 부분을 신경 쓰고 있다. 컨택 능력을 위해 더 연습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중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좋은 시즌을 보내고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성규. 하지만 지난해 고향에서 치른 '마지막 경기'를 생각하면 진한 아쉬움이 남는다.

이성규는 챔피언스필드에서 KIA의 V12 순간을 지켜봐야 했었다. 팀이 부상으로 신음했던 만큼 '진검승부'를 하지 못했던 게 아쉽다.

이성규는 "너무 아쉬웠다. 코너도 빠지고, (구) 자축이 행도 없고 전력의 50% 이상이 빠져나간 것만 같아 답답했다. 아쉬웠던 만큼 선수들이 다 분해하면서 내년에는 꼭 우승하자고 다짐했던 것 같다"며 "많이 아쉽지만 또 잘 준비해야 한다. 좋은 경험했으니까 올해 또 다른 시즌 보낼 것 같다. 부족했으니까 됐다"고 생각하고 팀이 정상에 오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또 다른 '가을 맞대결'을 기대했다.

/글·사진=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화성FC 프로 진출 확정 K리그2 14개팀 경쟁

화성FC가 프로축구 무대 진출을 확정하면서 2025시즌 K리그2에서 14개 팀이 경쟁을 벌인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지난 13일 2025년도 제1차 이사회 및 정기총회를 열고 ▲화성FC 가입 승인 ▲2024년도 사업결산 및 2025년도 예산 승인, ▲총재 선출 보고 및 신입 임원 선출 ▲각종 선수 규정 개정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연맹은 화성의 K리그 회원가입을 승인했다. 화성FC는 지난해 10월 연맹에 회원가입을 신청했고, 이어 11월 진행된 이사회에서 1차 승인을 받았다.

2013년 창단해 K3리그(3부)에 참여했던 화성은 차두리 감독을 앞세워 2025년 K리그2에서 도전의 시즌을 보낸다. 화성의 참여에 따라 K리그2 14개 구단은 올 시즌 각 39경기씩 소화한다.

연맹은 이날 2024년도 사업 결산(수입 약 453억 6464만원, 지출 약 434억 4784만원)을 하고, 2025년도 연맹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약 501억 533만원)도 승인했다.

권오갑 총재의 4선도 확정됐다.

앞서 지난달 24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총재선거 후보등록 결과 권오갑 총재가 단독 후보가 됐다. 2013년부터 연맹을 이끌어온 권 총재는 4선 연임으로 4년의 새 임기를 시작했다.

한용수 부총재와 조연상 사무총장, 김천수 감사도 연임한다.

지난해 9월부터 기술위원장 직무대행을 수행해 온 김호영 직무대행은 신임 기술위원장을 맡는다.

또 노동일 광주FC 대표이사가 지원한 경남 FC 대표이사, 전달수 전 인천유나이티드 대표이사와 함께 신임 인사로 선임됐다.

선수 규정 개정도 이뤄지면서 구단이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낼 수 있는 최대 인원이 FIFA 규정에 따라 기존 5명에서 6명으로 확대된다.

동일 구단 간 선수를 임대받거나 보낼 수 있는 인원은 1명에서 최대 3명으로 늘어난다. 최대 임대 기간은 만 1년이다.

또 군 입대 선수의 등록 규정이 개정되면서 경기, 추가 등록 기간 외에도 연맹이 정한 시점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아시아쿼터, 동남아시아 쿼터 폐지에 따라 복수 협회 대표팀 출전 자격 보유자의 AFC(아시아축구연맹) 국제 또는 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제 등록 규정은 삭제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3000만달러 사나이' 임성재 3년 묵은 PGA 우승 갈증 푼다

### 17일 개막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서 통산 3승 도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통산 상금 3000만달러를 돌파한 임성재(사진)가 3년 묵은 우승 갈증 해갈에 나선다.

임성재는 오는 17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캘리포니아주 라킨타에서 열리는 PGA 투어 시즌 세 번째 대회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총상금 880만달러)에 출전한다.

이 대회는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 라킨타 CC, 니클라우스 토너먼트 코스(이상 파72) 등 3개 코스에서 1~3라운드를 번갈아 치고 상위 65명이 피트 다이 스타디움 코스에서 최종 라운드를 치르는 방식이다.

임성재는 시즌 첫 번째 대회였던 더 센트리에 이어 두 번째 출격이다.

더 센트리에서 3위에 오르면서 136만달러의 상금을 따낸 임성재는 통산 상금 3125만9508달러를 찍었다.

PGA 투어에서 3000만달러 넘게 상금을 번 선수는 47명뿐이다. 한국 선수로는 최경주(3280만 3596달러)에 이어 임성재가 두 번째다.

2018-2019시즌에 데뷔한 임성재는 6년 연속 투어 챔피언십 출전이 말해주듯 매 시즌 페덱스컵 랭킹 30위 이내에 진입하는 기복 없는 경기력을 통해 이른 시일에 3000만달러의 사나이가 됐다.

아쉬운 점은 3년이 넘도록 우승 트로피를 보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임성재는 2020년 혼다 클래식에서 첫 우승을 달성했고 2021년 10월 슈라이너스 칠드런스 오픈에서 두 번째 우승을 거머쥐었지만 2022년, 2023년과 작년 등 3년 동안 우승 맛을 보지 못했다.

준우승은 무려 5번, 3위는 6번이다. 우승 경쟁을 펼쳤다고 볼 수 있는 5위 이내 진입은 20번이나 된다.

아메리칸 익스프레스에서 임성재가 시즌 첫 우승



이자 통산 3번째 우승을 이룰 가능성은 꽤 높다.

우선 임성재의 경기력이 좋다.

시즌 첫 대회 더 센트리에서 임성재는 3, 4라운드에서 62타와 65타를 쳤다. 우승한 마쓰야마 히데키(일본)와 함께 3, 4라운드 최저타수를 기록했다. 나흘 동안 버디 31개를 뽑아냈고 보기는 4개뿐이었다. 또 출전 선수 명단에 임성재를 압도할 강호가 많지 않다.

남자 골프 세계랭킹 2위 잰더 쇼플리(미국)가 개막을 사할 앞두고 출전을 포기하면서 임성재의 우승 가능성이 더 커졌다. 이번 대회 출전 선수 중에

임성재(19위)보다 세계랭킹이 높은 선수는 7위 윈덤 클라크와 12위 패트릭 캔틀레이(이상 미국) 둘 뿐이다.

임성재가 우승 상금 158만4000달러를 손에 넣는다면 최경주를 제치고 PGA 투어에서 가장 많은 상금을 번 우리나라 선수가 된다.

소니오픈에서 공동 65위에 그친 김주형과 2021년 이 대회 챔피언 김시우도 우승 후보로 거론된다.

소니오픈에서 연장전을 벌였던 테일러와 예차바리아의 리턴 매치도 예상된다. /연남뉴스